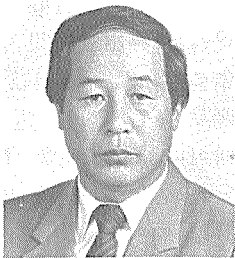


# 海外市場 拡大를 위한 提言

—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問題를 中心으로 —



任 寅 柱  
大韓貿易振興公社 市場開拓本部長

세계 무역에 있어서 전자산업이 유망분야라는 것은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간의 일치된 견해이며 '80년대 접어들어 개도국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선진국간, 선·신흥공업국간 경쟁이 가열, 특히 美, EC를 비롯한 선진수입국의 수입 규제 강화,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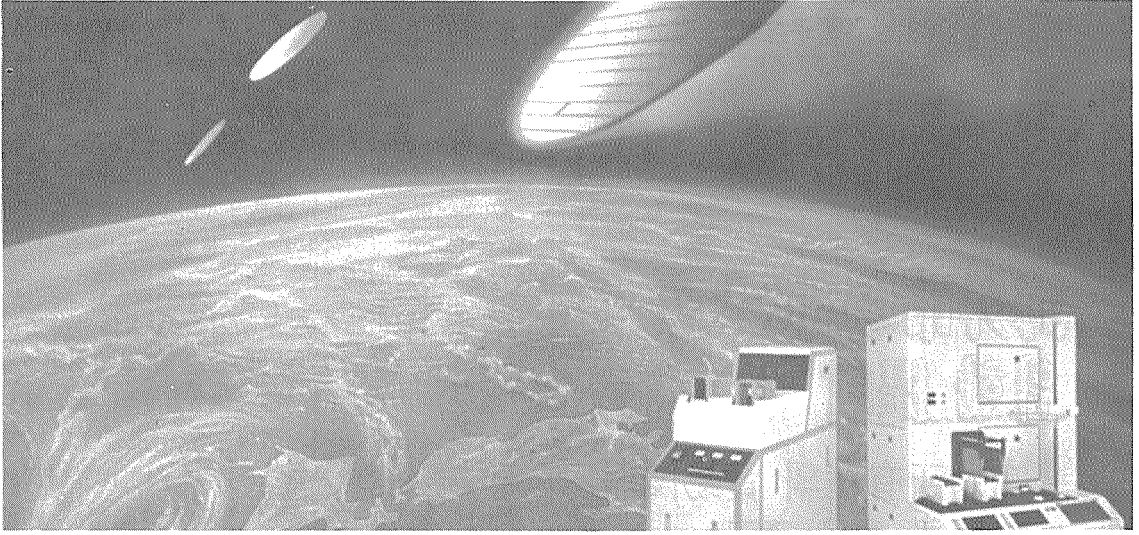
오는 '90년대 世界貿易을 主導할 産業分野가 電子分野일 것이라는 점은 世界 專門家들의 公 通된 견해인 것 같다. 앞으로 世界的으로 拡散 되어갈 情報化社會의 原動力은 半導體와 컴퓨터 그리고 通信機器 등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70년대 中盤이후 世界經濟가 低成長의 흥미를 거듭해온 과정에서도 電子産業만은 빠른 成長勢를 견지해 오고 있다. 年平均 世界經濟成長率의 2 배가 넘는 電子産業의 成長勢가 90年代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大多數 專門家들은 내다보고 있다. 先進國 中에서도 가장 빠른 電子部門의 成長勢를 보이고 있는 日本의 노무라綜合研究所의 展望을 보면, 오는 '90年代까지 世界經濟가 年平均 4.4%씩 成長하는 데 비해 電子産業은 9.6%씩 成長할 것으로 予測했다.

貿易面에서 살펴보더라도 電子産業은 世界貿易에서의 占有率을 지난 '70年代末부터 급속히 늘려왔다. '79年 4.3%에 불과했던 世界貿易에서의 占有率이 '85년에는 7.1%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GATT의 世界貿易報告書는 밝히고 있고, '87년에는 9%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推定했다. 9%의 占有率을 額數로 환산한다면, 약 2,000 억불에 달하게 된다.

'80年 달러 不變金額 기준으로 볼 때 '86年 현재 世界의 총 商品輸出高는 2% 減少되고, 工產品 輸出高는 10% 增加한 데 비해 電子部門의 輸出高만은 무려 60%나 늘어난 것으로 GATT는 분석했다. 電子産業 中에서도 同期間중에 VTR이 3 배이상 그리고 半導體와 컴퓨터가 각각 2 배이상 輸出量을 世界的으로 늘려 電子輸出을 主導했다.

지난 '70年代初 政府와 業界가 우리나라의 主力産業으로서 電子産業을 選定하고, 勞動集約的인 家電製品 生産構造의 拡充과 技術集約的인 産業用 高度電子産業 개발을 위하여 일관되게 全力投球해 온 것은 世界市場의 변화추세와 정확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KDI가 오는 2,000년까지의 産業別 年平均 成長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지적소유권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률을 예측한 것을 보면, 電子分野가 15.3%로서 가장 높고, 이는 노무라綜合研究所가 예측한 同期間중 日本의 電子産業 年平均 成長率 14.6%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87년 우리나라의 電子製品 輸出은 100億弗을 돌파하여 纖維類와 함께 名実相符한 兩大 輸出産業의 위치를 굳혔다. 그러나 그 잠재력으로 미루어 볼 때 電子部門이 단연 앞서가게 될 것은 2, 3年内의 일로 予想된다.

電子産業이 世界貿易上 有望分野라는 것은 先進国과 新興工業国에서 약간의 時差가 있었지만 일치된 견해였고, '80年代 들어서서는 일반 開途國들도 電子産業의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近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先進國間 혹은 先·新興工業國間 경쟁이 가열되어 특히 美, EC를 비롯한 先進輸入國에 의해 輸入規制가 강화되었다. 특히 電子分野 貿易이 다소 침체되었던 지난 '85년부터 先進國의 덤핑防止 関稅賦課 등의 不公正 輸出을 이유로한 規制가 확산되어오고 있다.

電子産業이 有望分野로 간주됨에 따라 先進國과 新興工業國들의 關聯業界가 投資를 확대해 오고, 게다가 中共을 비롯한 잠재력 큰 많은 開途國들이 다투어 이 分野의 開發에 참여하게 되자, 世界 電子貿易構造에 압박이 加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貿易에 관한 限 電子産業이 이제 분홍 빛깔의 내일을 약속받고 있다고 단언하

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오늘날 地域間 혹은 兩國間 가장 심각한 貿易 懸案問題로 등장한 通商摩擦의 主産業 중 하나가 바로 電子分野로 浮上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5년 9월부터 시작됐던 美日間 半導體 紛糾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輸出入國間 덤핑 혐의, 補助金 支給, 技術盜用 및 기타 不公正 去來 紛爭의 대상이 工產品 分野에서는 電子産業에 集中되고 있는 추세이다. 電子産業 開發의 核心은 技術이기 때문에 技術保護를 둘러싼 貿易紛爭이 확산되어 技術摩擦이란 新用語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特許庁 資料에 따르면, 우리 業체가 先進國의 關聯技術 保有業체에 支拂하는 特許實施料는 최근 급증하여 原価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国内 電子分野에서 中樞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家電3社의 경우 연간 로얄티 負擔額이 총 400억원 내지 5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特許庁은 集計했다.

우리 關聯業界에서 近年 有望品目으로 開發하여 현재 輸出을 늘려가고 있는 VTR의 경우 日本과 美國의 技術保有業체에 支拂하는 로얄티 額이 台當 10불 이상에 이르러 採算性 확보에 상당한 制約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막 成長단계에 접어든 컴퓨터, 半導體 및 NC 머신 등 主要 尖端製品에 있어서도 展開되고 있

다. 先進國의 主要 技術保有 企業들은 소위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갈수록 核心技術의 移轉을 기피할 뿐 아니라 설명 移轉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우리 關聯業界가 당면한 課題로는 ① 生産面에서 원활한 先進技術 移轉을 통한 獨自의 設計技術의 開發 加速화와 ② 貿易에 관련된 主要國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활용 極大化를 들 수 있다. 前者는 技術 自体의 開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후에 機會있을 때 이 分野 專門家의 所見을 듣기로 하고, 筆者는 여기에서 後者의 問題에 대해 集中的으로 意見を 피력하기로 한다.

戰後 世界貿易憲章 역할을 해온 것은 GATT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이다. 말하자면 GATT는 현재 90여個國을 넘는 會員國들의 國內 貿易關聯 法規와 節次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國際貿易統一規則인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輸出入國間 紛爭의 焦點이 되고 있는 各國의 덤핑 방지 절차만 하더라도 GATT 제 6조와 덤핑 방지 코드에서 정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고, 이 GATT의 원칙에 따라 어떤 나라의 덤핑 방지 절차 중 어떤 것이 不法이다 아니다 하고 利害 當事國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GATT 本文과 여러 부속 協定書에는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規則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 9조 6항 原產地 表示 關聯條項에 「眞性品の 識別을 위하여 商標가 침해되지 않도록 會員國이 相互協力할 것」과 제 20조 1항 一般의 例外 輸入規制 關聯條項에 「特許, 商標 및 著作權의 保護를 위해 輸入國이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문제가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아마 GATT가 成案되었던 지난 '40年代末과 本文條項이 修正되었거나 補充되었던 '55년과 '60年代初만 하더라도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이 GATT에서 핫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GATT 體制內 第 7次 多者間 貿易協商이었던 東京 라운드가 종결된 즈음인 '70年代末부터이다. 그때엔 美國이 偽造商品 防止協定을 마련하고자 強力히 主張했었으나, 유럽 國家들을 제외하고는 呼応度

가 낮아 東京 라운드에서 協定書를 채택치 못한 것이다. '82년 10월엔 美國이 정식으로 GATT에 偽造商品 防止協定 草案을 제출했고, 86년 9월 出帆되었던 GATT 體制內 第 8次 多者間 貿易協商인 烏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위조상품 문제를 포함한 모든 知的所有權 문제들을 다루기로 하고 현재 제네바에서 協商이 進行중에 있다.

特許權에 관한 파리協約이나 著作權에 관한 베른協約 등 相關 國際協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協約이 知的所有權 보호 문제를 協約國의 國內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知的所有權을 둘러싼 貿易上 紛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國際統一規則이 없기 때문에 各國의 國內法規와 節次가 상이하어 貿易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물론 輸出入國間 紛爭이 야기되었을 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번 烏루과이 라운드에서 知的所有權 보호 문제를 主要 이슈로 다루게 된 이유이다. 물론 많은 開途國들은 貿易上 知的所有權이 타이트하게 보호될 때, 技術移轉, 로열티 부담 및 輸出增大 등에 더 큰 制約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이 문제가 GATT에서 論議되는 것 自体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의 입장에서는 현재 特許權의 침해여부로 美國과 같은 大輸入國과 貿易紛爭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偽造商品이라는 이유로 輸入이 배제되는 등 通商摩擦이 빚어지는 狀況에서 知的所有權 보호에 관한 國際貿易上 論議를 기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GATT 體制內에서의 論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는 國際 知的所有權 保護 協定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長期的으로 볼 때, 電子分野와 같은 高度技術商品의 海外市場 확대의 길을 닦아 나가는 契機이 될 것이다.

知的所有權이 國際貿易上 적정하게 보호될 때는 公正한 貿易秩序를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過剩保護될 때는 先進輸入國에 의한 가혹한 輸入規制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技術移轉을 저해시킴으로써 開發水準이 낮은 나라의 發展을 事前的으로 制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는 현재의 덤핑 防止 節次를 이용한 輸入規制 보다 훨씬 더

가혹한 規制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政府와 業界 모두가 이를 경계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知的所有權 協商에 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는, 美國과 유럽 國家들이 國際적으로 保護되어야 할 知的所有權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되도록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協商立場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特許權, 商標權 및 著作權의 보호뿐 아니라 營業秘密(trade secret)과 半導體 칩設計(semiconductor chip layouts)까지 保護 대상의 知的所有權으로 美國은 提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部門의 보호를 著作權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美國商議는 최근 政府에 제출한 資料에서 知的所有權이 國際적으로 적정하게 保護되지 못하므로써 美企業들의 年間 로얄티 損失金이 80~200억불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美 政府가 知的所有權의 적정한 保護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도록 요구했다.

「適正한 保護」를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이미 先進國 중에서도 美國과 日本間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立場에서는 美國의 「適正保護

基準」이 過剩保護로 보여지기도 한다. 적정한 保護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定立해 나가고, 그것이 이론상 大多數의 開途國과 적지않은 先進國의 同意를 받을 수 있도록 政府와 業界의 專門家 그룹이 형성되어 研究해야 하겠다. 현재 코트라의 關聯부서는 知的所有權의 향후 國際貿易上 重要성을 감안하여 담당 職員의 人員을 다소 늘려가면서 調査, 研究를 強化하고 있고, 그 결과를 政府의 協商代表團에 보고하고 있다. 筆者는 특히 이 기회에 高度電子, 生産業체들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뿐 아니라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련된 貿易節次를 研究, 活用할 전담부서까지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戰略이 바로 長期的으로 海外市場의 占有率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우선 당장은 貿易實務的 측면에서 어떻게 제반 知的所有權이 보호될 때 우리의 成長에 得이 될지를 政府에게 알려주어 그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長期的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導入될 主要國의 關聯制度와 節次를 活用하여 지속적으로 貿易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事前 준비에 着手해야 할 것이다.

